

養鷄產業 安定의 지름길

73년의 오일파동 이후 가장 큰 제2차 파동에 당면한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충격파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터 산업 및 경제 각 부문에 걸쳐 불안과 회의만이 감돌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기구한 운명의 산업적 기아(棄兒)의 신세일론지도 모르겠다. 주곡농업의 전통속에서 숨 한번 크게 쉬어 보지 못하다가 60년초에 비로서 초지농업이다, 축산진흥연차계획이다 해서 이제 좀 살아날 길이 트이나 보다 했더니 축산진흥회를 통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를 수입하여 싼값으로 풀어 먹이고 있으니 농민들은 저우가(低牛價)에 거의 질식상태에 빠져있다. 국민들은 좋아라고 불고기다 갈비다 곱탕 설렁탕 만 먹어재끼고 있다.

내가 작년에 브라질에 들렸을 때 나는 그나라 국민들이 어디가나 쇠고기를 아주 흔히 또 많이 먹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서울 거리 대중 음식점의 쇠고기 편향(偏向) 소비성향과 대조해 본다. 브라질은 고기소가 3,000만두를 넘는 쇠고기 수출국의 하나이다. 그나라는 국민학교 극빈 아동들까지도 도시락 반찬은 쇠고기라고 한다. 브라질은 풍부한 쇠고기 자원을 가졌길래 아무 거리낌없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식생활 양식이요, 또한 소비의 미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쇠고기 자원인 소가 아주 부족하다. 그러기에 알뜰히 가꾸어 길러서 고기소 자원을 함양하고 증식해 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우가(高牛價) 정책으로 농민을 보호하고 쇠고기의 소비를 억제해야한다.

인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곧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45년 제2차대전 종결 당시 180만두이던 고기소는 1965년 100만두로 감소했지만 고우가정책을 계속 실시해온 결과 현재 200만두의 고기소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에서 쇠고기 등심 한근 (600g)의 소비자가격은 1만원을 훨씬 넘는다. 일본인들의 쇠고기에 대한 기호(嗜好)도 우리들만 못하지 않지만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李 在 根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일본에서도 물론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그 양을 극소화하여 농민을 보호하면서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쇠고기 소비 억제 시책은 자연히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대체소비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일본의 돼지 마릿수는 1,000만두를 넘고 있으며 닭은 채란계 1억 3,000만수, 부로일 러 5억 8천만수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일본의 돼지 마릿수와 소비량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본래 돼지가 없던 나라이다. 나라시대(奈良時代)에 비로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따라서 일본국민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기호는 아주 좋지 못하다. 일본인들은 단백한 쇠고기와 생선류를 즐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6배가 넘는 돼지를 기르면서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막대한 양의 돈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일본의 계육(鶏肉) 소비도 또한 대단하다. 일본에 있어서의 육류소비의 패턴은 쇠고기 20%, 돼지고기 40%, 닭고기 30%, 기타 10% 정도인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축산업은 육유, 낙농, 양돈, 양계 각분야가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축산업발달의 기간요인은 고우가 (高牛價) 정책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우가 정책과 대체 효과의 이론은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공정이 잘 수 있을 터인데, 어찌 우리나라 시책 당국 만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근에는 더욱 놀랄 만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한우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축은 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비교생산비가 높으니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참기가 참 노릇이다. 소의 생산을 공산품과 한 가지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우리 한우는 배달민족과 더불어 그 생을 같이 해오면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여를 해온 고유의 유산이다. 우리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한우도 무한히 긋주리면서 악식에 견디어 왔다. 그려기에 벗집 만으로 한겨울을 잘 견디어낸다. 이렇게 한국에 적합한 소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의 과학적수단은 우리 한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그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완전히 자원전쟁에 들어가는 것 같다. 오페크(OPEC)의 석유무기화에 이어, 미국은 꼭물의 무기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호주, 뉴우질랜드, 브라질 등 쇠고기 생산국들은 쇠고기 수출국동맹을 펴하고 있다. 미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개발(gasohol)을 개발하여 85년대에는 석유의 10%를 자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어째서 유독 우리나라 위정자들 만은 한치의 앞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 시책당국자들은 온고지신(溫古知新)의 동양적 평범한 진리마저 외면하는 것일까. 한우자원을 현신짝 버리듯 없애버리고 쇠고기의 수입마저 어렵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과연 어느 누가 지는 것인지. 이 계제에 명확한 답변을 들어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안정적 발달을 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우를 바탕으로 육우자원 함양을 위한 고우가(高牛價) 정책이 확립되어야 되겠으며, 이러한 기조밑에서 양돈과 양계의 발달을 도모해 나가야 되겠다.

끝으로 양계산업의 안정화에 대한 소견을 요약해 본다. 채란양계업 분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3,000수 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사양수수(飼養首數) 동결에 의하여 계란의 계획생산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신규로는 3,000수 이하 밖에는 허용되지 않게 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본에서 이미 1974년부터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부로일러 양계 분야는 계약생산체제(integration)에 의하여 부화업, 사료생산업, 가축약품업, 도계업 등 관련기업과 브로일러 생산농가가 계약체계에 의하여 통합 경영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생산이 조절되어 부로일러 산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방법은 선진제국에서 이미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부로일러 생산의 95% 이상이 계약생산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리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여하튼 우리 양계업자들도 이제는 생산과잉속에서 서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지양하고 알맞게 생산하여 우리의 이익과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겠다.